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 이루키바시 유적

이루키바시 유적

이루키바시 유적은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자키 2 초메 부근에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5,000 년 전의 패총이 주를 이루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메구로가와 강을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표고 15m~20m 의 대지(臺地) 위에 위치합니다.



▲이루키바시 유적 출토 조몬 토기

패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패총은 당시 사람들이 채취하여 먹은 조개껍데기 등이 쌓이고 쌓여 형성된 것입니다. 조개 이외에도 새와 짐승의 뼈, 바다거북 등 파충류의 뼈, 물고기의 뼈와 이빨, 생활 도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루키바시 유적의 패총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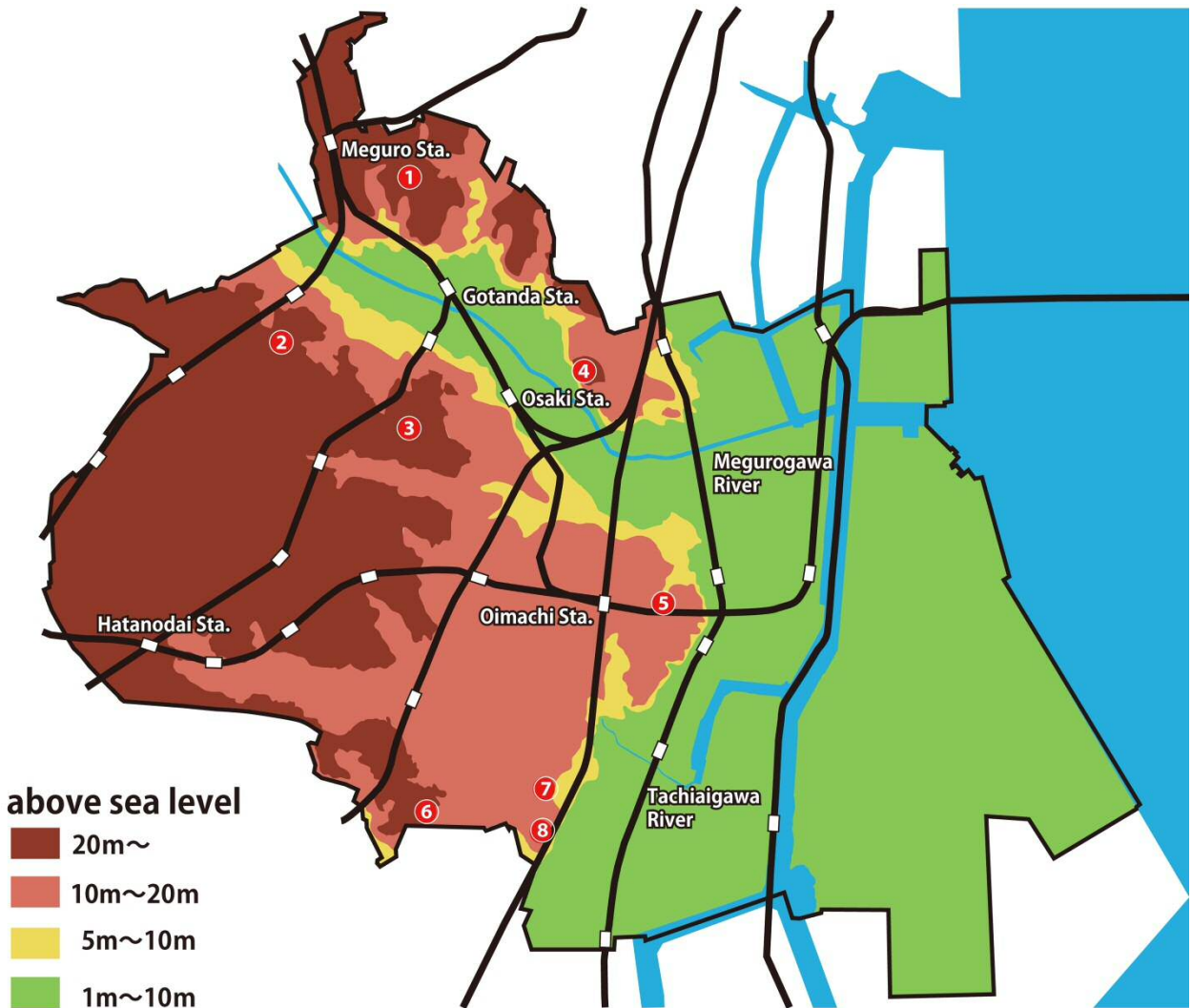
▲조몬 토기 출토 모습

조개류: 피빨고둥, 수랑, 새꼬막, 꼬막, 참굴, 대합, 맛조개, 떡조개, 유하드라 달팽이  
짐승뼈: 일본사슴, 멧돼지

토기: 조몬 토기

석제: 돌도끼, 돌촉, 경석으로 된 부표, 석제 장식품

조개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은 대합과  
꼬막입니다. 현재, 꼬막은 규슈보다 남쪽의  
따뜻한 바다에서만 나므로, 이 시대는  
지금보다도 따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패총에서 출토되는 조개와 동식물의  
종류를 통해 환경이나 지형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시나가와구의 주요 유적

- ①이케다야마키타 유적 ②기리가야 유적 ③이루키바시 유적 ④고텐야마 유적 ⑤센다이자카 유적  
 ⑥오이카네코야마 황혈묘군 ⑦오이카시마 유적 ⑧오모리 패총

조몬 시대

조몬 시대란 기원전 13,000 년경부터 시작되는 시대로, 주로 수렵· 채취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용된 토기에는 새끼줄 모양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조몬(縄文: 승문) 시대라고 합니다.

조몬 토기라는 명칭은 1877 년에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가 오모리 패총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여 1879 년에 간행한 발굴조사 보고서 『오모리 패총』에서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이를 1886 년에 시라이 미쓰타로가 ‘조몬 토기’로 번역했습니다.

조몬 시대는 토기 형태 연구를 통해 대략

다음 여섯 시기로 분류됩니다.

초창기: B.C. 13,000 년부터 B.C. 7,500 년경

조 기: B.C. 7,500 년부터 B.C. 4,000 년경

전 기: B.C. 4,000 년부터 B.C. 3,000 년경

중 기: B.C. 3,000 년부터 B.C. 2,000 년경

후 기: B.C. 2,000 년부터 B.C. 1,000 년경

말 기: B.C. 1,000 년부터 B.C. 100 년경

조몬 토기는 띠 모양으로 늘인 점토를

여러 겹 쌓아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의

토기는 바닥이 좁고 뾰족하며 아가리는 넓게

퍼진 모양입니다. 이윽고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생김새와 무늬가 변화해 갔습니다.

대나무나 조개껍데기로 무늬를 넣은 토기도

있습니다.